

캠핑, 어렵지 않아요!

## 나에게 알맞은 캠핑 스타일 찾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부쩍 바깥으로 나갈까 싶은 마음이 드는 계절이다. 가족과 함께 캠핑이라도 나가볼까 싶지만, 장비들을 보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면 먼저 캠핑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부터 돌아보자.

글\_김준성(『김준성의 힐링 캠핑 이야기』 저자)



### 캠핑,

#### ‘자연을 즐기고 배우는 자리’



쉽게 설명해 캠핑은 도심과 집을 떠나 자연 속에서 자신이 마련한 텐트나 막사를 설치하고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배우는 자리를 말한다. 최근 캠핑으로 인한 교육 가치가 높아지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캠핑이란 주제의 축제 문화다. 혼자 하는 것에서 가족이 하는 취미로 바뀌는 추세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깨워주는 취미 중 하나가 바로 오토캠핑이다.

캠핑은 소통이 공간이 되기도 한다. 캠핑으로 아이들에게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워주고, 자연을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써 삭막한 도시의 인심을 정화해주고 사회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는 교육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가족애를 심어주고 서로 존중하는 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캠핑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야영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의 오토캠핑 문화에 이르렀다. 그런 면에서 야영과 오토캠핑은 의미가 같다. 오래전에는 노숙, 들살이라는 이름으로 야영을 했다면 오토캠핑은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즐기는 취미가 굳어져 생긴 용어다.

과거의 야영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한 방법이었다. 지금의 오토캠핑은 그곳의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것이 합족

되어 있다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모두 자연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연을 잠시 빌려 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캠핑 준비는 형편에 맞게!



처음 오토캠핑을 시작하려면 막막하기만 하다. 개인적으로 오토캠핑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오토캠핑이 가장 즐겁게 캠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부담 가는 지출로 힘들게 장만한 장비를 중고로 팔고 캠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남들도 하는 캠핑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험해주고 싶다’는 부모 입장이라도 캠핑 장비 구매는 많이 부담스럽다. 아이들과 적어도 4~5년을 즐길 수 있는 장비를 계획한다 해도 최소의 금액으로 꾸릴 것을 권한다. 주변에서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 시작하거나 중고 캠핑 장비를 사는 것도 값싸게 시작하는 방법이다.

### 사전 준비가

#### 주말 캠핑 성공 열쇠



주말에 떠나는 캠핑을 알차게 즐기려면 시간을 나눠 쓰는 요령이 필요하다.

**첫째,** 음식은 주중에 미리 넉넉히 만들어 얼려둔다.

**둘째,** 짐을 간소화하고 목요일쯤 미리 짐을 챙기자.

토요일에 떠나는 캠핑이라 여유가 없다. 옷은 간소화하되 아이들 여벌 옷은 챙길 것.

**셋째,** 캠핑 장비나 용품은 미리 차에 실어 놓는다.

**넷째,** 초보라면 미리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설치 연습을 하자. 최소 두세 번은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다섯째,** 장작이나 숯은 미리 사거나 캠핑장에 주문할 것.

**여섯째,** 1박 2일로 가는 캠핑은 특별히 음식을 할 필요가 없다. 저녁은 캠핑장 입장 전에 해결하거나 고기를 구워서 저녁 캠핑을 즐기면 된다.

**일곱째,** 아침밥은 수프나 얼려온 음식을 녹여 끓여 먹는다.

**여덟째,** 오전 10시~11시쯤 철수해 점심은 집에서 해결하자.

### TIP



#### 나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찾아라

**+ 미니멀 캠핑\_** 돔 형태의 4m 내외 길이를 지닌 작은 텐트와 기본 2~4인용에 맞춘 장비를 말한다. 모든 장비가 작고 수납이 편리하다. 장비 가격도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하다. 수납하기 좋고 나무 느낌이 나는 제품은 비싸지만, 알루미늄으로 된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 빅 캠핑\_** 빅 캠핑은 거실형 텐트를 기준으로 최장 7m의 텐트를 가지고 구성하는 캠핑을 말한다. 기본 4인 이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장비를 맞춘다. 테이블은 주방용과 거실용 모두 갖춘다. 알루미늄으로 된 테이블과 의자로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다.

**+ 비박 캠핑\_**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실타프(실리콘 타프)나 베스트리블(vestible) 같은 것을 이용해 공간을 만들고 침낭을 바닥에 깔고 자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가장 작은 장비로 노숙하는 형태다. 혼자 쓰는 텐트와 장비로 구성하며 뉴시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최소의 장비로 극한과 한계를 즐기는 형태로, 남 눈치 안보고 실타프 하나 걸치고 자는 것도 비박의 개념이다. 심지어 침낭만 가지고 다니는 비박캠핑도 있다.

**+ 오지 캠핑\_** 전기, 개수대, 화장실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장소이면서 법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에서 즐기는 캠핑이다. 편의시설은 없지만 오토캠핑장처럼 시끄럽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맛이 있다.

**+ 카리반 캠핑\_** 과거 상인들이 이동 중에 잠을 자거나 생활하던 장비인 카리반을 이용한 캠핑. 차의 견인장치를 이용해 끌고 다니는데, 일종의 캠핑카와 같다. 카리반 밖에 어닝이나 텐트, 타프를 치고 캠핑을 즐긴다. 카리반 안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춰 편리하다.

**구입하기 전에  
먼저 빌려보자!**



캠핑이라는 취미를 위협하는 문제는 바로 '지름신'이라 부르는 충동구매식 소비다. 캠핑은 자신의 수입과 밀접한 소비를 해야 오래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캠핑 용품을 사기 전에 글램핑이나 카라반 대여 캠핑, 캠핑장이나 용품 빌려주는 곳을 먼저 이용하길 권한다. 일단 1박 2일 정도 캠핑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글램핑장이나 싼값으로 캠핑용품을 빌려 써보면서 자신과 캠핑이 맞는지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 캠핑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보이거나 생길 때 하나씩 사자. 용품을 모으고 쓰는 재미에 주말이 행복할 수 있고, 캠핑을 오래 즐길 방법이다.

**최저가  
인터넷 구매의 함정**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방식은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직접 볼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으로 실상 저렴하게 샀다고 해도 캠핑매장에서 사는 분들보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캠핑매장의 특징은 제품을 직접 보고 실감하면서 제품 사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흥정의 재미까지 즐길 수 있다.

캠핑용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앉아도 보면서 느끼고 실감한 뒤에 구입하는 것이 불용품을 줄이는 길이다. 요즘은 곳곳에 캠핑매장이 있으며, 인터넷에 지역 이름과 캠핑매장이라고 검색만 해도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다.

현장에서 캠핑용품의 3원칙(눈으로 보자, 만져 보자, 체험해 보자)을 해보면 쉽게 자기와 맞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요즘은 캠핑매장도 경쟁이 치열해 할인도 약간 더 많이 해준다. 덤으로 잘 이용하면 실속 구매가 될 수 있다.

**캠핑을 위한  
최소 조건은 이것**



오토캠핑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캠핑하는 사람이 두 명이면 큰 텐트는 필요가 없다. 또한 어린 자녀가 껴 있는 3인 가족이 캠핑을 하는 '가족형 캠핑' 역시 대형 텐트가 필요 없다. 대형텐트 구매 비용에만 100만 원이 넘기도 한다. 100만 원이면 3인 가족이 충분히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대형텐트는 초보가 다루기에 힘든 텐트임이 틀림없다. 남들이 다하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오토캠핑을 처음 하는 이들이 쉽게 겪는 실수다.

**캠핑을 위한 최소의 준비물**

- ✓ 텐트 : 돐형텐트(2~4인용), 방수포, 발포 매트, 전기장판, 침낭 (겨울용 사각형, 처음이라면 집에서 쓰는 이불 가능)
- ✓ 버너, 코펠(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재질 또는 집에서 쓰는 냄비 등), 식기(집에서 조달), 수저 세트(집에서 조달), 설거지통, 설거지 건조망
- ✓ 랜턴(가스랜턴, 휴대용 포함), 의자, 바비큐 의자, 화로대 (소형접이식)

**캠핑의 기초,  
텐트 고르기**



텐트는 캠핑 때 가지고 다니는 집과 같다. 텐트는 원단과 모양이 다양하고 색상 또한 다양해서 뭐가 뭐지 헷갈린다. 뼈대 역할인 폴(일명 폴대) 소재도 알루미늄부터 두랄루민, 화이버그라스가 있고,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의 에어 텐트도 많이 찾는다. 텐트의 소재는 폴리 재질의 원단과 면, 면 혼방으로 나뉘며 소재와 구조에 따라 텐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텐트 종류는 크게 터널형, 캐빈형, 돐형, 인디언 텐트(티피)형이 있다. 현재 돐형이 가장 많이 보급됐고, 돐 형태

텐트를 응용해 다양한 텐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텐트는 1인용부터 2인용, 4인용으로 가장 흔하게 구분된다. 많이 보급되는 텐트는 4인용으로, 최소 사용 면적을 계산할 때 200×60cm 정도를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

**돔 텐트 · 빅돔 텐트**\_ 돔텐트는 달걀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원형 텐트다. 알파인 등산용에서 출발해 현재 오토캠핑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설치가 간편한 구조가 특징이다. 폴 재질은 저가형의 화이버그라스부터 중·고가형의 알루미늄 소재, 고가형의 두랄루민 소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크게 3계절용과 4계절용으로 나뉘며 달걀 모양의 역학적인 구조로 바람에 강한 특성을 보인다. 바닥은 내수압이 높은 원단을 사용해 방수 기능도 갖췄다. 설치와 철수가 빠른 장점과 함께 공간이 좁은 곳에서 활용하기 좋다. 빅돔 텐트는 돔 텐트를 크게 만든 것이다. 오토캠핑 전용으로 개발돼 자동텐트 방식과 폴을 끼우는 방식으로 나뉜다.

**리빙 셀 텐트**\_ 공간 활용이 좋은 텐트. 거실용 · 주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전체적인 공간을 좌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설치가 빠르다. 주로 캠핑 중 · 고수가 많이 찾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식당 겸 주방으로 활용하고, 옵션으로 침실로 사용하는 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다.

**캐빈 텐트**\_ 캠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긴 터널 형식의 텐트.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며 거주공간을 확장한 느낌의 대형텐트다. 4~6개의 알루미늄 폴을 쓰는 구조로 안에서 침실을 고리로 걸 수 있도록 고안됐다. 텐트 중에서 가장 설치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텐트다.

**티피 텐트**\_ 일명 인디언 텐트라고 불리는 디자인으로 설치가 간단하며 긴 폴 1개를 세워 자립하는 형태의 텐트다. 이 텐트는 거실과 침실을 분리하면 공간 활용이 떨어지는 편으로 팩을 많이 박는 것도 단점이다. 하지만 공기 순환

**텐트 관리 “뉘고 기름 치고 조이자”**

텐트 수명은 사용자 관리에 달렸다. 습한 곳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펼쳐보니 곰팡이가 피어 텐트 세탁소에 보내거나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무리하게 힘으로 설치하거나 제대로 조립하지 않은 폴을 억지로 끼우다가 부러지기도 한다. 만약 텐트가 젖었다면 2~3일 내에 주차장이나 공원에서 펼쳐 바짝 말리자. 섬유탈취제를 뿌리고 그늘에서 말린다. 오염된 부분은 연성 세제를 스펀지에 적셔 조심스럽게 문질러 지우고 맑은 물로 씻으면 된다. 텐트에 물이 샌다면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해 해당 부위에 뿌려준다. 바닥에서 물기가 올라온다면 텐트를 뒤집어 펼쳐 스펀지로 텐트 전용 방수제를 발라 말린다. 텐트 이음 부분은 심실러를 발라주면 된다.

이 잘되고 난방효율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사계절 사용할 수 있고 대형텐트에 속한다.

**자동텐트**\_ 폴과 텐트 스킨이 부착되어 나오는 제품이다. 우산처럼 펴는 식으로 설치가 간단하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겁다. 폴 구조가 화이버그라스 재질이 많아 바람에 약한 편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초보 캠퍼가 많이 찾지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닷가 등은 위험하다. 자동텐트는 작은 돔 형태부터 던지면 설치되는 텐트, 대형 사계절용까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TIP**

초보 캠퍼에게 추천하는 텐트 종류

**✦ 1순위 돔 텐트**

일단 설치가 쉽다. 캠핑 가기 전에 연습 삼아 펼쳐봐도 불편할 게 없다. 5월~9월에 캠핑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최고라 할 수 있다.



**✦ 2순위 리빙 셀 텐트**

설치가 돔 텐트 다음으로 쉽다.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며 4인 가족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다.

